

■ 2분기 기업실적 희비 교차

전자·석유화학 ↓ 자동차·정유·조선 ↑

하반기, 삼성전자 상승세 진입
자동차·LCD 업종 부진할 듯

삼성전자 등 전자업종과 석유화학업종의 주요 기업들이 2·4분기에 시황침체, 고유가, 환율하락 등으로 인해 대체로 부진한 경영성적을 낸 반면 자동차·정유·철강·조선업종 기업들은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하반기 실적은 삼성전자의 경우 바닥을 지나 상승세로 접어들고 정유·조선업종도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LG필립스LCD와 자동차업종은 부진양상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는 등 업종이나 기업마다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2분기 기업 실적=지난 14일 발표된 삼성전자의 2·4분기 영업이익은 1조4천200억원으로 1·4분기에 비해 12.1% 감소하면서 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 초라한 수준이었다. 매출(14조1천100억원)은 전분기와 비슷했으나 순이익(1조5천100억원)도 20%나 곤두박질쳤다. 낸드 플래시와 LCD의 가격하락이 크게 작용한 탓이다.

또 11일 실적을 발표한 LG필립스 LCD는 LCD 가격하락의 직격탄을 맞아 2·4분기에 분기실적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3천72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LG화학의 경우도 고유가로 원가 부담이 커지고 공급과잉 사이클이 지속되면서 2·4분기 매출이 2조2천725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6.6%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43.9% 감소한 480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전례로 보면 영업이익이 사실상 반토막났다. 이에 반해 포스코는 2·4분기 영업이

익이 9천415억원으로, 2년여 만에 최저치였던 전분기의 7천900억원보다 19.1% 증가하면서 작년 1·4분기 이후 지속해온 하락세에서 벗어났다. 또 현대차는 아직 2·4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영업이익이 약 3천800억~4천200억원 선으로 1·4분기의 3천353억원보다 소폭이나마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반기 업종·기업별 전망 엇갈리=삼성전자의 경우 2·4분기 부진한 실적을 올렸지만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바닥을 지나 상승세로 진입할 것'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반도체 부문은 지난 5월부터 낸드 플래시 가격이 안정되고 있고 LCD도 경쟁업체들의 잇단 감산에 따라 늦어도 4·4분기부터 가격추이가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휴대전화 부분은 2·4분기말 신제품 출시와 함께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유업계도 고유가와 정제마진 호전 등에 힘입어 실적 개선 기초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조선업종은 환율하락과 선박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수주량이 늘고 있어서 하반기에도 수익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업계는 여름 휴가와 최근 확산일로로 견고 있는 노조파업으로 인해 하반기 실적이 급락하면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내 최대의 단일 노조인 현대차 노조가 지난달 26일부터 파업을 지속하면서 파업의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는 데다 기아·GM대우·쌍용 등 나머지 업체도 노조들도 속속 파업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포스코는 2·4분기 소폭이나마 개선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일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점치고 있지만 철강재 가격의 최대 변수인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는 데다 건설업 불황 등으로 철근 등의 수요가 회복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주택담보대출 '뚝'

금융당국 규제로 신규수요 실종

지난달 중순 이후 금융감독당국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던 시중은행들이 7월들어 일제히 대출을 개재했지만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후반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했으나 당시 대출을 받지 못했던 대기성 수요들이 이달초 몰렸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신규 수요는 사실상 실종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비수기에 접어들었다 각종 부동산규제 효과가 본격화되고 급리마저 상승세를 타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조짐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7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주요 4개 시중은행의 13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주택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133조7천87억원으로 6월말 대비 4천443억원 늘어난 데 그쳤다. 정상적인 대출이 이뤄졌던 지난달 상반기(6월1~15일) 증가액이 1조1천893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고는 이달 13일 21조1천447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868억원이 증가했다. 지난달 상반기 증가액(2천530억원)에 비해 3분의 1 토막이 난 것이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상반기 4천730억원이 늘었지만 이달들어서는 1천174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달 상반기 2천596억 증가했던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이번 달 661억원이 증가, 4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신한은행도 이달들어 1천731억원 늘어 지난달 상반기 증가액(2천694억원)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신규 대출이 아예 중단됐던 지난달 하반기와 달리 주택담보대출을 완전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16~30일까지의 증가액(2천853억원)에 비해 55%(1천59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점에 더욱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통상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선반영한다는 점에서 올 하반기 부동산시장 경착륙의 조짐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변액보험 해약 급증

수익 기대 못미쳐 ... 효력상실도 늘어

최근 변액보험이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중도에 해약하거나 보험료를 안내는 가입자도 급증하고 있다. 17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05 회계연도(2005년 4월~2006년 3월) 변액보험 해약 건수는 3만496건, 해약 환급금은 3천53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각각 545%, 390%가 늘었다. 또 보험료를 제때 안내 보험 효력을 상실한 변액보험 계약은 9천910건, 효력 상실 금액은 378억원으로 각각 549%, 25%가 증가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를 주식 등에 투자해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상품으로, 생명보험사들이 집중적으로 팔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변액보험은 높은 수익이 기대된다는 보험사의 말을 듣고 가입

했다가 기대에 못미쳐서 해약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보험사와 분쟁을 벌이는 가입자가 많았다고 추정되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이 통계는 주계약과 각종 특약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특약을 제외한 주계약 기준 해약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2004년에 비해서는 해약이 크게 늘어난 수준"이라고 말했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수익률이 당초 보험사가 예시한 것보다 낮고 납입 보험료를 중도 인출할 수 있는 금액도 생각보다 적어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중도 해약하거나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가입자도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비오는 날엔 빈대떡 대신 피자”

17일 애경백화점 구로점에서 열린 '1.8m짜리 대형 피자 전시회' 이벤트에서 고객들이 조각피자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미들 떠나는 주식시장

거래량·거래대금도 감소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가 급감함에 따라 하루평균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 매매가 전체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4분기 63.23%를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여 올해 2·4분기에는 49.40%로 떨어졌으며 이달들어 13일까지는 46.79%로 추락했다. 이에 비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대금 비중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기관의 거래대금 비중은 지난해 3·4분기 15.33%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올해 2·4분기에는 19.60%로, 이달들어 13일까지는 22.66%로 증가했다. 외국인의 거래대금 비중도 지난해 4·4분기에 18.05%로 바닥을 친 뒤 오름세로 돌아서 올해 2·4분기 27.29%, 이달들어 13일까지는 27.52%로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의 거래량에서도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1·4분기 개인의 거래량 비중은 90.89%를 기록한 뒤 꾸준히 줄어 올해 2·4분기에는 81.47%, 이달들어 13일까지는 78.95%로 추락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의 거래량 비중은 지난해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올해 2·4분기 각각 7.73%, 9.00%로 늘었고, 이달들어 13일까지는 각각 9.10%, 10.06%를 기록했다.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 부진은 전체 주식시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감소를 초래했다. /연합뉴스

생명보험 상장논의 '금물살'

삼성생명 57만~70만원 전망

생명보험회사들의 상장논의가 금물살을 타면서 주가가 얼마나 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시전문가들은 해외 상장 생명보험사들의 가치와 장외거래 가격, 주가순자산비율(PBR), 수익성 등을 고려한 결과 상장시 주가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57만~70만원, 15만7천~17만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른 생보사들은 현재 장외시장에서도 비교적 적정한 가치를 받고 있다고 평가됐다.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46만4천550원, 14만5천원이며 미래에셋생명 1만5천950원, 동양생명 1만원, 금호생명 8천300원 등이다. 한류투자증권은 미국 생명보험사들과 비교할 때 미국의 대표적인 생명보험사인 프르텐셜의 PBR은 2.6배를 기록 중인데, 국내 생보사들은 상장 기대감이 반영돼 13일 장외시장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수정 전 평균 PBR은 2.4배로 크게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주당순자산가치가 41만2천494원인 삼성생명의 상장 후 주가는 현재 장외거래 가격인 46만원선보다는 높겠지만 80만원을 밑도는 57만~70만원대로 추정된다. 앞서 1997년 삼성차 채권단은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으로 산정해 받았다. 또 교보생명은 ROE가 16~17%로 추정됨에 따라 수익성을 감안해 주당순자산가치(7만8천715원) 대비 2배를 적용한 적정 주가는 15만7천~16만원선으로 예상됐다. /연합뉴스

금호석유화학 특허권 승소

미국 플렉시시사와 타이어 산화방지제 분쟁

금호석유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했던 타이어 산화방지제 제조 특허권을 둘러싼 미국 플렉시시사와의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월 ITC의 폴 루커튼(Paul J. Luckern) 행정관사로부터 금호석유화학이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은 데 이어 ITC도 최근 금호석

대로, 그것도 상대 국가의 법정에서 일관된 승소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금호석유화학은 플렉시시사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는데, 이 일을 계기삼아 외국 대형업체들이 한국 수출기업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무역을 방해하는 전횡을 일삼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 플렉시시사는 작년 2월 "시노

'상대국 법정에서 이긴 싸움' 큰 의의
원료 첨가된 금호타이어 수출 "OK"

유화학이 플렉시시스의 특허를 침해한 바 없다고 최종 승소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결정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은 중국 시노켄(Sinorgchem)사로부터 구입한 4-ADPA(아미노디페닐아민)를 계속해서 이용, 수명연장 및 탄성강화 차원에서 모든 타이어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타이어 산화방지제인 6PPD(파라페닐렌디아민)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금호타이어도 금호석유화학의 6PPD를 함유한 타이어를 미국에 계속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는 "특히 이번 결정은 국내 기업이 세계 굴지의 기업을 상

쟁사가 생산하는 4-ADPA가 플렉시시스의 제조특허를 도용했으며 이 제품을 원료로 금호석유화학이 제조하는 타이어 산화방지제인 6PPD 역시 플렉시시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관세법 제337조에 근거해 ITC에 제소한 바 있다. 플렉시시스는 생명공학 분야의 세계적 기업인 몬산토(Monsanto)사와, 화학산업에서 세계 굴지의 기업인 악조(Akzo)가 합작설립한 세계 최대 고무약품전문회사로 타이어 등의 고무제품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약품을 제조·생산해왔으며, 특히 4-ADPA라는 화학약품 제조방법 특허권을 갖고 있다고 금호측은 전했다. /연합뉴스

슈퍼마켓 상호 '현대' 가장 많다

전국 '슈퍼' 14만5,000개

지역명 '서울'이 1,231개

'우리나라에 슈퍼마켓은 과연 몇 개나 있을까. 그리고 수많은 슈퍼마켓의 상호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무엇일까' 평소 집 근처 슈퍼마켓을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물어왔을 만한 의문문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전국 슈퍼마켓의 개수는 약 14만5천개로 추정되며 슈퍼마켓 상호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현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T&G가 자사의 전국 14개 지역본부 산하 160개 지점과 거래하고 있는 지정 담배소매상 숫자를 토대로 추정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슈퍼마켓 전국에 1천880개=KT&G의 분석에 따르면 개인 슈퍼마켓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상호

는 '현대'로 조사 대상의 1.4%인 1천880개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슈퍼마켓 1천개 중 14개는 '현대'를 상호로 쓰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1천370개로 2위를 차지했고 '제일' 1천38개, '그린' 946개, '중앙' 920개, '대상' 913개, '서울' 625개, '삼성' 600개 등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명은 '서울'이 제일 많아=지역을 나눠 상호 사용 빈도를 분석한 결과 '서울'을 사용한 곳이 가장 많았는데 옛 이름인 '한양', '한성', '경

성' 등을 포함할 경우 모두 1천231개 슈퍼마켓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과 '대구', '경남', '경북' 등 영남권 도시 및 지역을 상호로 사용한 곳이 1천123개로 그 뒤를 이었고, '충청' 555개, '경인' 361개, '호남' 290개로 뒤를 이었다. ◇대기업 인기는 '현대'·'삼성'·'대우' 순(?)=인지도가 높은 국내 대기업명을 빌려 일종의 '후광' 효과를 겨냥한 상호도 즐겨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인기있는 대기업은 전체 1위인 '현대'가 차지했고 국내 경제순위 1위인 '삼성'의 이름을 빌린 곳은 600개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주공'이 547개, '동아' 343개 등이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담양온천	(담양리조트) 정규직 및 파트타임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9	061-380-5016
☎에스아이투어	정규직 웹디자이너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0	062-224-5401
☎케이씨	(주)케이씨 영업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7/20	062-236-1682
KBSJOB	금호생명 광주콜센터 대표전화 인바운드 상담직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7/20	02-516-6190
☎히미시네마	히미스포렉스 수장정 인포메이션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0	062-269-5757
☎엘에스텍	사무관리/Auto CAD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2	062-972-6102
☎위너	생산 및 품질관리, 가스안전관리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4	061-362-0789
☎한성미래통신	CATV 유지보수 (경험자우대)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4	062-943-0005
☎디에스아이	관리/경리부 부서 직원	초대졸/경력2년	1,000~1,200	07/24	062-971-9911
☎빙그레 서광주점	빙과류배출 및 판매 영업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8	011-616-5819
☎피리안정보기술	미케팅, 영업 및 관리 남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8	062-385-0524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